

# Planning special [1]

## '06년 미주지역 축산물 가격전망

- By ROD SMITH  
번역: 본회 기획팀

**소** 비자 물가지수(CPI)발표에 따르면 '05년 식품에 대한 물가지수는 현실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물가지수의 회복은 육류 및 낙농제품에 대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수요와 가격상승으로 급격한 소용돌이에 휘말린 '03~'04년의 수준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하며 올해('06년)도 식품가격의 안정적인 상승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농무성 산하 경제연구소(ERS) 발표에 따르면 전체식품가격은 '03년과 '04년 각각 2.2%, 3.4% 증가하였으며 '05년 2.5%, '06년에는 3.0%에 이를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소고기, 닭고기, 계란, 치즈에 대한 소비증가로 이들 제품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5년 사이 가장 급속한 비율로 증가하였으며 전체 음식에 대한 소비자물가지수의 증가 원인으로 나타났다. 소고기의 경우 '03~'04년도에 9.0%, 11.6% 계란의 경우 13.8%, 6.2% 각각 증가하였으며 '04년도 돼지고기 5.6%, 가금류는 7.5%, 낙농제품은 7.3%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의 대부분은 단백질 제품의 수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는 높은 단백질/낮은 탄수화물의 제품 및 고품질의 단백질식품을 선호하면서 가격상승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축산물의 소비자물가

지수 증가원인으로 식품의 미국 농무성 산하 경제연구소(ERS)는 1979년 이래 쇠고기 가격이 가장 크게 증가한 2004년 쇠고기물가지수를 대표적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05년도 소비자물가지수는 이러한 단백질 공급원에 대한 극적인 상승수준에서 벗어나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계란의 경우 14~15%가 떨어졌다.

올해('06년) 소비자물가지수는 '03~'04년도 소용돌이 후 소매부분의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비교적 소폭 상승할 것으로 미국 농무성 산하 경제연구소(ERS)가 발표하였다.

그동안, 전통적인 음식 소매상인들은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약국(미국은 식품 등의 판매가능)과 가격으로 밀어붙이는 창고형 대형마켓사이에서 점점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었으며 이러한 위기상황은 1998년 이래 시장규모의 15%를 빼앗기는 결과로 나타났다. 물론 이러한 경쟁은 항상 축산물 생산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낮추게 하는 요인으로 상당한 압력을 주고 있다.

이 잠재적인 압력은 소, 돼지, 가금, 우유 및 계란에 대한 올해('06년) 가격을 간접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가계수준의 저하로 계란소비가 급증하면서 생산규모가 증가했던 계란과 닭고기는 비교적 낮은 가격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량 또한 가격에 상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으

며 쇠고기 생산은 '03~'04년 사이 감소한 후 점차 증가하여 '05년에는 안정을 유지하였으며 돼지고기, 가금류 등 전체육류의 생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칠면조의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수요와 공급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인 생산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유생산 또한 '02~'03년 가격하락으로 인한 소용돌이 속에서 생존한 낙농가들의 재건에 힘입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쇠고기 수출은 미국의 BSE(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소해면상뇌증)가 발생했던 '02~'03년도의 낮은 수준에서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돼지고기는 수출은 BSE발생으로 인한 시장내 쇠고기 대체효과로 꾸준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닭고기 수출은 아시아와 멕시코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쇠고기, 돼지고기 및 닭고기 소비는 증가하고 칠면조의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소비는 사실상 수익면에서 1파운드당 닭고기보다 높아져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나 닭고기가 최근 몇 년 사이 쇠고기의 소비량에 근접하면서 고기의 왕(King of meats)으로서의 쇠고기 위상에 도전하고 있다. 계란 소비 또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㉞



자료출처 : 「Feedstuffs」 11월 14일자